

복지 관련 부경·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224-5800

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경영평가 창립 첫 'A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A등급'을 달성했다.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9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총 128개(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종합평가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향했다.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확충, 장애인근로자의 안전 대책 마련, SK그룹 등 대기업과 연계한 자회사 설립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것으로 공단은 판단했다.

조종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사회적 가치와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고자 경영전략체계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공공성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혁신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중흥토건, 이동복지 차량 성금 전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중흥토건(주)에서 '찾아가는 빨래방' 지원서비스 차량구입 명목으로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중흥토건(주)에서 '찾아가는 빨래방' 지원서비스 차량구입 명목으로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오세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 1팀장, 오세현 팀장, 중흥토건(주) 나성운 현장소장, 김상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현주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팀장, 오형순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장.

다. 이날 전달식에는 중흥토건(주) 목포하당지구 추상복합 신축공사장 나성운 현장소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 목포시청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목포 지역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방문 빨래를 지원하는 이동복지차량에 쓰인다. 현재까지 이동 빨래 차량 구입에 필요한 980만 원 중 740만 원이 모금됐다.

김정현 기자

UN장애인권을 듣다...인권 감수성 교육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산장애인복지관 내일 마을살이&장애 인권지킴이단 활동가 교육 韓장애인 최초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 초청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정성주)와 광산구장애인복지관(관장 윤종철)은 오는 25일 마을살이&장애 인권지킴이단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UN장애인권을 만나다'라는 주제의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살이&장애 인권지킴이단 활동가 양성 교육은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이 함께 광산구에서 장애인활동가를 위한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광산구 등록 장애인 인구는 17,509명(2019. 5. 기준)으로 광주에서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교육은

하고 있는 곳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총 4개소로 장애인구 대비 적다.

오는 25일 광산구정 7층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구소는 최초로 UN장애인권리위원으로 선출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을 강사로 광산구지역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은 1999년 장애여성문화공동체를 설립했으며, 우리나라의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성안에 기여하는 등 한국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장애인활동가이다.

이번 교육을 공동주관하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윤종철 관장은 "병소 찾기 어려운 UN장애인권리위원

을 모셔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많이 와서 교육을 듣고 장애 인권감수성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주 소장은 "한국에서의 장애인당사자의 삶과 UN에서의 장애인당사자의 삶을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062-966-8352) 또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062-943-0420)에 문의하면 된다.

임형택 기자

시각장애인에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음성으로 안내

보건복지부, 안내서 음성자료 제작·배포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로 제작·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제작한 이번 자료는 지난달 개정된 안내서를 바탕으로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다.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 복지부(<http://www.m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국립장애인도서관(<http://nlid.nl.go.kr>)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http://dream.nl.go.kr>)을 통해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김민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용 안내서를 개정 발간할 예정"이라며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안내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9일 게임물모니터링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가한 게임물모니터링단 요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게임물관리위원회 "건전한 게임문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공단')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장년 및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모니터링단 직무를 개발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게임위는 공단과 장애인 중심의 게임물모니터링단 발족하였고, 2월 이후 공단에서 6주간의 산하 연계 훈련을 실시한 후 30명의 장애인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채용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 모니터링 요원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모바일게임물의 연령등급 적정성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모니터링 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효과적 모니터링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채용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데, 6월 19일부터 두 번째 교육이 실시된다.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장애인근로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임=조대호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통직필

호남신문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